몽골

정보수정일자: 2012. 12. 26
작성처: 베이징 무역관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1. 국가개요 ··· 1

2. 경제동향 및 전망 ··· 10

3.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 12

4. 우리기업 투자동향 ··· 14

5. 출장가이드··· 15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몽골(Mongolia)
위치	중앙아시아 고원지대 북방에 위치한 내륙국가 북쪽으로 러시아, 남쪽으로 중국과 접경
면적	1,567,000㎢, 한반도의 7.4배
기후	건성냉대기후
수도	울란바토르(Ulaanbaatar)
인구	283만명 추정(2011년 7월 기준)
주요도시	다르한(Darhan), 에르데넷(Erdenet), 초이발산(Choibalsan)
민족(인종)	할흐몽골족(90%), 카자흐족(5.9%), 브리아드계(2%) 등
언어	할흐 몽골어 90%, 키릴문자, 문맹률 5%이하
종교	라마불교(90%), 무슬림 5%, 무속 및 기독교 5%
건국(독립)일	○ 국가독립일: 1921.7.11 (소련 적군과 연합하여 중국으로부터 독립) ○ 국가선포일: 1924.11.26 (러시아식 헌법을 채택, 몽골인민공화국 선포)
정부형태	민주공화제(92.1.13 新민주헌법 발효, 2000.12.14 헌법 개정,총 의석수 76석)
국가원수	대통령: Tsakhia Elbegdorj(임기 4년, 연임 가능, 2013년 5월 대선 예정)
시차	한국보다 1시간 늦음.(4.27~9.28 기간은 서머타임제 실시)

자료: 주한몽골명예영사관

나. 경제지표

GDP	US$ 61억(2011년)
GDP 성장률	17.3%(2011년)
1인당GDP	US$ 3,042(2011년)
실업률	9.0%(2011년)
물가상승률	9.5%(2011년)
화폐단위	Tugrik
환율	1US$=1395.47Tg(2012년 12월 17일 현재)
외환보유고	US$ 2,672백만(2011년)
교역규모	○ 수출: US$ 3,870 백만(2011년) ○ 수입: US$ 6,884 백만(2011년)
교역품	○ 주요수출품: 석탄, 동, 금, 형석, 몰리브덴 등 광물 및 캐시미어, 피혁제품 ○ 주요수입품: 석유, 자동차, 기계류, 일상 소비재 등

자료: EIU Country Report(GDP, GDP성장률, 물가상승률, 외환보유고)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1인당 GDP, 실업률)
한국무역협회(교역규모, 교역품)
Bank of Mongolia(환율)
World Bank Mongolia Quarterly Economic Update(실업률)

다. 한국과의 관계

교역규모	ㅇ 한국의 수출: US$ 349,874천(2011년), US$ 398,064천(2012년 1월~11월) ㅇ 한국의 수입: US$ 60,623천(2011년), US$ 49,755천(2012년 1월~11월)
교역품	ㅇ 주요 수출품: 건설중장비, 산업관련 자동차, 윤활유, 철구조물 등 ㅇ 주요 수입품: 금속광물, 비금속광물, 섬유제품, 목제품, 육류가공품 등
투자교류	(2012년 12월말초)한국의 대(對)몽골 투자액(누계): US$ 291,449천 (신고 건 수: 961건, 신고액: US$ 646,127천)
교 민	약 3,000명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라. 국가개요 일반사항

1) 국가명

□ 몽골(Mongolia)

몽골(Mongol)이란 용어는 원래 '용감함'이란 뜻을 지닌 部族 명이었으나 칭기스칸에 의해 통일된 몽골部族의 발전에 따라 민족명(Mongol)으로 바뀌었다.

과거에 사용된 蒙古(몽고)라는 명칭은 중화사상을 가진 중국인들이 주변민족을 '몽매한 야만인'이라고 경시하면서 청나라 이후 '몽고'라고 부른 데서 유래된 것이다.

□ 국가독립일

- ㅇ 국가독립일: 1921.7.11 (소련 적군과 연합하여 중국으로부터 독립)
- ㅇ 국가선포일: 1924.11.26 (러시아식 헌법을 채택, 몽골인민공화국 선포)

□ 국화: 연꽃

□ 국기: 소욤보기(旗)

직사각형이 3등분 되어 있고 중앙은 청색, 양쪽은 적색이며 좌측 적색부분에 황색의 국가 상징인 소욤보가 그려져 있다. 소욤보는 표의문자이며 몽골의 자유와 독립을 상징하는 정통문장으로서 1924년 채택되었다.

2) 수도

울란바토르(Ulaanbaatar) - '붉은 영웅' 이라는 뜻이다.
면적은 1,358㎢(서울의 2.2배), 북위 47도 55분, 동경 106도 53분에 위치한다. (위도상 파리, 뮌헨, 시애틀과 일치하며 경도상 호치민, 자카르타 등과 거의 일치함)

3) 인구

2011년 7월 기준 283만 명으로 추정되며 인구 밀도는 1.8/㎢, 남자 평균 수명은 65세, 여자 평균 수명은 70세이다.

4) 위치

중앙아시아 고원지대 북방에 위치한 내륙국가로서 북쪽으로 러시아, 남쪽으로 중국과 접경하고 있으며, 국경선의 총 길이는 8,162km이다.

5) 국토구성

면적 1,567,000㎢로 한반도의 7.4배이며 동서 길이가 2,392Km, 남북 길이가 1,259Km이다. 이중 목축지 면적이 80%로 가장 많고 이어 산림(10%), 경작지(1%), 기타(9%)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리형태상 전형적인 고원지대로써 사막이 많다. 북서부는 알타이산맥이고 동남부는 평원지대이며 평균고도는 1,500m(오대산의 정상 높이)이다. 서쪽 끝의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지대에 솟아있는 후이틍 어르길(Huityn Origil) 봉우리는 최고해발인 4,374m이다. 최저지대(522m)는 동부 평원지대에 분포한다.

6) 기후

건성냉대기후에 속한다. 전형적인 대륙성기후로 겨울이 길고 추우며, 여름이 매우 짧다. 연중 구름이 없는 날이 257일이나 되어 맑고 높은 하늘을 항상 볼 수 있다. 11월~3월은 영하, 특히 1월~2월은 영하 20℃가 보통이며, 겨울철 야간에는 영하 40℃이하까지 내려가는 반면, 여름은 33~38℃로 무덥다. 평균기압은 1,036mb이다.

7) 민족

할흐몽골족(90%), 카자흐족(5.9%), 브리아드계(2%) 등 17개 부족이 있다.

8) 언어

할흐몽골어(Khalkh Mongolian)가 공용어이며 문자는 키릴문자로써 러시아문자를 차용하고 있다.

9) 종교

라마불교가 주종을 이루며 최근 기독교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10) 주요도시

다르한(Darhan,9.5만명), 에르데넷(Erdenet, 9.1만명), 초이발산(Choibalsan, 7.0만명) 등이 있다.

11) 시차

울란바토르는 한국보다 1시간 늦다.
* 4.27~9.28 기간은 서머타임제를 실시한다.

12) 공휴일

신년 휴일(1.1), 차강사르(몽골력1.1~2, 한국 음력설 해당), 여성의 날 (3.8), 어린이날(6.1), 나담절 (7.11~13), 건국기념일(11.26)

13) 자원

원유, 석탄, 구리, 몰리브덴, 텅스텐, 주석, 니켈, 아연, 금 등의 매장량이 풍부하다.

마. 정치체제

1) 정부형태

민주공화제(92.1.13 新민주헌법 발효, 2000.12.14 헌법 개정). 과거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의 중간형태인 이원집정부제를 시행했으나, 헌법 개정으로 의회와 내각의 권력이 대폭 강화되어 의원내각제 성격이 강화됐다.

2) 주요 지도자

○ 대 통 령: Ts. Elbegdorj
○ 총 리: S. Batbold
○ 국회의장: D. Demberel

3) 주요 정당

□ 몽골인민당(Mongolian People's Party)

○ 당수: S. Batbold
○ 1990년 초까지 헌법으로 보장된 일당독재체제를 유지하다가 1996년 6.30 총선 패배 후 야당으로 전락(25석)했다. 2000년 7.2총선에서 압승(76석 중 72석 차지)하면서 국제적 사회민주주의 정당 조직인 '사회주의 인터내셔널(SI)'에 가입하는 등 중도좌파적인 성격으로 변신했다. 2004년 6.28 총선에서 패배(37석)해 연합정부를 구성했으나 2006년 1월 조국당 소속 바타 의원이 입당해 1석을 추가, 38석이 되면서 단독 내각을 구성했다. 2008년 6월 총선에서 전체 의석(76석)의 과반수가 넘는 45석을 확보하였다. 2012년 6월 28일 치러진 총선에서 지난 총선에서 20석을 잃은 25석을 얻는데 그쳐 야당인 몽골민주당에게 제1당의 지위를 내주었다.

□ 몽골민주당(Democratic Party)

○ 당수: Altankhuyag Norov
○ 2000년 7월 총선 참패 이후 구 여권 민주세력인 민족민주당과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이 2001년 12월 발족한 통합야당으로 2004년 6월 총선에서 군소야당과 연합해 민주연합을 결성, 연립내각에 참여했다. 2006년 1월 여당의 내각 해산 이후 야당으로

전환됐다. 2008년 6월 총선 이후 28석을 확보하여 제 1 야당이 되었다. 2012년 총선 결과, 4석을 더 얻은 31석으로 원내 제 1당의 지위를 탈환하며 정권교체에 성공했다(몽골은 의원내각제 성격이 강해 의회 다수당이 집권당임).

□ 정의연맹(Justice Coalition)

○ 당수: N.Enkhbayar
○ 엥흐바야르 전 대통령이 인민당내 권력투쟁 과정에서 구 인민당 당명과 같은 인민혁명당을 새로이 창당했다. 몽골인민혁명당과 몽골전통민주당이 연합하여 '정의연대'를 결성하여 2012년 총선에서 11석을 얻어 2석을 얻는데 그친 '민의-녹색당 연합'을 제치고 제2야당의 지위를 획득했다.

바. 경제현황

2011년 GDP 성장률은 2010년(6.4%) 대비 급증한 17.3%를 기록해 경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기과열의 주 원인은 정부지출 급증으로 2011년 정부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무려 56% 증가했다. 몽골정부는 광산자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반으로 정부지출을 급격히 확대하고 있으며 2012년에도 정부지출을 2011년 대비 32%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다. 다수 전문가들은 몽골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무리하게 지속한다면 글로벌 경제위기 영향으로 광물 자원이 급격히 하락할 시 버블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몽골정부는 경기과열을 억제하고자 화폐정책을 통해 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억제 및 대출 증가속도 억제를 위한 다양한 긴축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2011년 인플레이션(9.5%) 및 대출증가율(73%)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향후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몽골의 2011년 교역액은 총 107억 5400만 달러로 2010년(66억 1400만 달러) 대비 63% 증가했다. 수출은 38억 7000만 달러(전년 대비 38% 증가), 수입은 68억8400만 달러(전년 대비 80% 증가)했으며, 광산개발 관련 장비 및 연료 수입 증가로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 기타

1) 주거환경

몽골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동식 텐트 가옥인 겔(Ger)에서 생활한다. 겔은 내몽골 지역에서는 파오로 불린다.

현대식 아파트는 1960년대부터 건설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까지 몽골인들의 아파트 거주율은 전체인구의 49.1%수준이며 상당 수는 여전히 겔에서 거주한다.

2) 식생활

목축업을 주로 하는 몽골인들은 봄과 겨울에는 주로 양고기를 먹고 여름과 가을에는 버터, 치즈 등 유제품을 먹는다. 이밖에 말 젖으로 빚은 마유주(알코올 도수 1도 전후의 발효주)를 즐기며, 아침에는 수테차(Suteychai 몽골전통차)를 마신다.

3) 의상

몽골인들은 한국의 두루마기를 닮은 겉옷 델(Del)과 모자격인 말가이(Malgai), 긴장화 모양의 신발인 고탈(gutal) 등 전통의상을 즐겨 착용한다.

4) 신앙

□ 라마불교

몽골은 13세기 초 전래된 라마교(티벳 불교)를 국교로 제정하여 인구의 90%이상이 라마불교를 믿고 있다. 단 헌법상 종교신앙 자유를 보장해준다.
현재 울란바토르에 설치한 라마 불교 사원인 강단사(Gangdan Monastery)에는 100여명의 라마승이 있으며, 부설 승원을 운영하고 있다. 몽골 서부지역의 카자흐족은 수니파 회교를 믿는다.

□ 샤머니즘

몽골역사 초기부터 16세기까지 몽골인들의 심성에 가장 깊이 자리잡은 신앙체계로서 오늘날에도 몽골인들의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초기 몽골제국시절 무당에게 전쟁에 대한 자문을 구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몽골지역 곳곳에서 한국의 서낭당과 유사한 '어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통상 돌이나 흙 무덤에 버드나무 가지를 꽂아 놓고, 재난방지와 가축의 번성을 위해 기도한다.

□ 기독교

영국인 John Gibbens가 선교활동을 시작하였고, 한국인 및 미국인 선교사들의 활동으로 신자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5) 교육

□ 교육제도

유치원(3-6세), 초 중등교육(7-16세, 10학년제), 고등교육(17세 이상, 통상 4년제) 등 3단계 교육제도를 시행한다.

의무교육은 초등교육 6년이며 전국적으로 700여 개의 초등학교가 설치되어 있다. 대학교육은 대학교, 기술학교, 직업학교 등으로 분류된다. 현재 몽골국립대를 비롯한 전국 각급 학교의 한국인 유학생 수는 약 3,700명에 달한다.

□ 교육현황

유치원 취학대상 아동 중 1/3정도만이 유치원에 등록하고 있으며, 초. 중등교육은 1-8학년 까지는 96%의 높은 취학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9-10학년 이후 50% 이하로 급감하고 있다. 고등교육 과정으로 몽골국립대학 등 7개의 고등교육 전문기관과 40개 직업기술 학교 가 있다.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건설. 공업계 학교의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과거 러시아어가 제1외국어로 널리 보급되어 있었으나 점차 수요가 줄어들면서 영어, 일어 및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6) 문자

현재 키릴 신문자를 사용하고 있다. 1941년 러시아 문자를 기본으로 한 키릴 신문자를 기본문자로 제정, 1946년부터 전국 내에서 통일 실시했다.

한편, 전통문자 복원을 위해 1990년 몽골 고유문자 복원위원회를 구성하고, 몽골 전통문자 복원사업을 시도하였으나, 국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7) 언론

□ 신문

- 주요일간지: Urdiin Sonin(Daily News), Zunny Medee(Century News), Unuudur(Today), Mongoliin Medee(Mongolian News) 등
- 영문 간지: Montsamee News, Mongoliathisweek (주간) Mongol Messenger (주간), Ulaanbaatar Post (주간) 등.
- 기타 200여 신문이 발간된다.

□ 잡지

Turiin Medeelel(정부발간 정보지), Eruul Mend(건강잡지), Shya-Medee(과학아카데미 뉴스) 등

□ 방송사

- Mongol TV.Radio: 국영, 유일하게 전국에서 시청가능한 몽골 최대 방송사
- Ulaanbaatar TV: U.B.시영, 수도일원에서만 시청 가능
- MN Channel 25: 민영 TV 방송국
- Eagle TV: 미국(선교재단)과 몽골과의 합작으로 설립된 민영TV 방송사
- 기타: FM 라디오 음악채널, U.B.시 라디오 채널 등

□ 통신사

- Montsame(Mongol Tsahilgoan Medeenity Ayentlag): 1957년 창설, 국영
- Mongol Press: 1986년 설립

8) 축제

□ 나담(Naadam) 축제

나담의 의미는 Play 또는 Rest의 뜻이다. 현재의 나담은 몽골인민혁명 정부가 사회주의 혁명이 달성된 1921.7.11일을 기념하기 위해 도입한 관제행사로서, 매년 7.11-7.13일간 전국적으로 개최된다. 사회주의 혁명이전 일곱 명의 봉건제후가 주관하던 전통 나담 행사와 몽골민족의 영산인 복드산, 헨티산 및 어버에 바치는 제2대 나담 행사를 합친 형태로 진행된다. 나담은 원래 종교적 의미와 군사훈련의 의미가 강하였으나, 지금은 전국적 축제 행사를 통한 국민결속이라는 정치적 의미가 상대적으로 강해졌다. 주요 행사는 축하 연회, 축하군중 대회, 축하공연(활 쏘기, 경마, 씨름 등 민속경기) 등이다.

자료: 주 몽골한국대사관 등, Bank of Mongolia 통계자료

2. 경제동향 및 전망

몽골의 연도별 주요경제지표

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f
명목GDP(US$백만)	3,132	3,930	5,258	4,584	6,083	6,100	7,600
1인당 GDP(US$)	1,214	1,505	1,991	1573	2,433	3,042	3,623.5
실질GDP성장률(%)	8.6	10.2	8.9	-1.6	6.4	17.5	11.8
물가상승률(%)	5.9	14.1	26.8	6.3	18	9.5	14.3
실업률(%)	3.2	2.8	2.8	11.6	13.0	9.0	-
수출(US$백만)	1,543	1,950	2,534	1,830	3,467	3,870	3,978
- 수출증감률(%)	44.8	26.4	29.9	-27.7	89.4	11.6	4.0
수입(US$백만)	1,407	2,003	3,147	2.013	4,014	6,884	5,290
- 수입증감률(%)	20.8	42.3	57.1	-35.7	99.4	71.5	8.0
무역수지(US$백만)	136.2	-52.4	-612.6	-183.0	-547.4	-3,014	-1,312
FDI(US$백만)	289.6	360.0	585.5	517.0	1,574	5,309	1,500
외환보유고(US$백만)	718.0	1,000.6	656.7	822.1	902.1	2,672	-
환율(연말)(tg/1US$)	1165.0	1170.0	1267.5	1458.05	1355.93	1396.37	1,354

주: * 2012f 자료는 World Bank 및 EIU의 2012년 경제수치 예측치 임
자료: World Bank, EIU

가. 경제동향

몽골경제는 광업. 목축업 등 1차 산업 실적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를 갖고 있다. 1990년대 초반 구소련 붕괴와 함께 코메콘(COMECON)이 해체되자 그 동안 몽골경제의 원동력이 되어왔던 석유 등 에너지, 자금 및 기술 지원이 중단되면서 산업 전반이 위축되고 교역도 감소해 1993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자금 지원 하에 민영화 추진, 외국인투자 법 시행 등 일련의 경제개혁 정책이 점차 성과를 보이면서 1994년부터는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됐다.

이 때부터 몽골은 경제정책 조정 및 정부기관 구조조정과 분권, 민영경제 장려, 중소기업 지원, 은행구조조정, 국유기업 사유화, 가축의 사적 소유 허용, 대외무역 확대, 외자도입 등 일련의 개혁을 통한 경제발전에 나서기 시작했다. 현재 민영기업이 전체 기업 수의 80%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수년 간 몽골의 실질GDP 성장률은 2003년 7.0%에서 2007년 10.2%까지 꾸준히 상승했으나 2008년 말 미국 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둔화세로 돌아섰다. 2008년 경제성장률은 8.9%로 주춤했으며 2009년에는 전년대비 1.6% 감소했다. 2011년에는 광물자원 개발 확대로 인한 수출 및 외국인투자 증가에 힘입어 실질 GDP 성장률이 17.3%를 기록하였다.

물가지수는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10%대와 20%대의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금융위기 후 오름세가 꺾여 2009년에는 6.3% 상승에 그쳤다. 2011년 소비자 물가는 정부지출 증가, 소득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9.5% 상승하였다.

몽골의 수출은 2004~2008년까지는 연평균 20% 이상의 속도로 증가했으나 2009년에는 광물가격의 하락으로 2009년 수출 총액 27.7%, 수입 총액이 35.7% 감소하여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2010년부터는 수출, 수입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1년에는 수출 38억 7천만 달러, 수입 68억 8천4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오유-톨고이 구리광산 개발 프로젝트(세계에서 5번째로 큰 광산)로 인해 2011년 한 해 GDP성장률은 17%에 달했고, 이는 2012년에도 무난히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2012년 7월과 8월 이어진 수출급감과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 중국경제의 불투명한 전망은 GDP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3년에 걸친 과도한 정부지출의 증가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나. 2012년 몽골 경제발전 전망

2012년은 몽골 내 주요 광산개발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어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 투자 등이 활성화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EIU(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등 국제기구는 2012-2013년 실질 경제성장률이 16%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몽골 정부는 광산자원 수출로 확보한 풍부한 재정 및 세수수입을 바탕으로 2012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해 공공 인프라 구축 및 사회복지 확충을 도모할 계획이다. 다만 가파른 물가상승과 대출증가 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인상 등 긴축적 통화정책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 부문에서 몽골은 중국,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일본, 한국 등과의 경제교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몽골은 에너지 수입을 러시아에, 수출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상대국 정치,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경제가 크게 휘청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몽골은 2012년 3월 일본과 FTA 협상 시작을 선언하는 등 일본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광물자원과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 2013년 몽골 경제발전 전망

전세계적 경제불황과 국내성장둔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2013년 1월부터 ‘재정안전법’(현재 의회에서 처리 중)이 전면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정부지출의 증가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는 GDP의 증가분보다 많은 정부지출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지, 긴축정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관측된다. 공공부문 투자에 따른 장기적 성장과 인프라 건설은 2013년에도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몽골 중앙은행은 2013년에도 변동환율제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외환시장의 극심한 변동이 예상되는 바 환율의 근본적인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의 외환시장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금융분야 리스크에도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3.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교역현황

연도별 한국의 대 몽골 교역액 통계

(단위: US$ 천,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11월)
수 출	110,306	169,758	238,231	166,887	191,631	349,874	398,064
증감	42.1	53.9	40.3	- 29.9	14.8	82.6	23.2
수 입	6,440	20,729	31,150	21,479	38,839	60,623	49,755
증감	31.6	221.9	50.3	-31.0	80.8	56.1	-13.6
무역흑자	103,866	149,029	207,081	145,409	152,792	289,251	348,309

자료: KOTIS

나. 주요 교역품

○ 주요 수출품: 건설중장비, 산업관련 자동차, 윤활유, 철구조물, 플라스틱제품 등
○ 주요 수입품: 금속광물, 비금속광물, 섬유제품, 목제품, 육류가공품, 과자류 등

대 몽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US$ 천, %)

순위	품목명	2010년		2011년		2012(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총계		191,631	14.8	349,874	82.6	총계	398,064	23.2
1	건설중장비	14,734	238.3	33,861	129.8	화물자동차	54,599	23.2
2	화물자동차	24,,633	-17.3	48,905	98.5	건설중장비	48,616	46.4
3	승용차	16,141	110.9	48,508	200.5	승용차	35,596	-17.9
4	윤활유	11,421	76.9	19,836	73.7	윤활유	16,619	-9.3
5	특장차	997	102.3	3,713	272.4	철구조물	12,306	52.9
6	철구조물	2,195	-5.6	8,302	278.3	특장차	10,989	206.6
7	기타플라스틱제품	3,183	39.8	5,437	70.8	화장품	7,738	8.7
8	광산기계	353	-32.0	3893	1004.4	기타플라스틱제품	7,135	41.2
9	자동차부품	7,541	-38.9	7,446	-1.3	음료	6,972	18.7
10	음료	4,164	88.8	5,979	43.6	경유	6,957	-

주: 순위는 2012년 11월 누계 기준
자료: KOTIS (MTI 4단위 기준)

대 몽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US$ 천, %)

순위	품목명	2010년		2011년		2012(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총계		38,839	80.8	60.623	56.1	총계	49,755	-13.6
1	기타금속광물	33,777	80.1	36,711	8.7	기타금속광물	41,615	21.8
2	기타비금속광물	3,095	185.3	2,783	-10.1	기타비금속광물	3718	49.7
3	편직제의류	515	125.9	755	46.7	편직제의류	2078	203.7
4	기타섬유제품	54	26.9	85	55.9	기타섬유제품	535	537.3
5	목제생활용품	0	-	58	254,052.2	양가죽	459	-35.7
6	육류가공품	92	282.3	103	11.8	육류가공품	222	114.6
7	건축용목제품	20	-81.9	-	-100.0	직물제의류	155	210.3
8	사탕과자류	56	716.5	155	178.2	사탕과자류	151	7.1
9	양가죽	273	15,932.4	714	161.3	목제생활용품	121	216.3
10	주류	101	127.4	101	-0.1	건축용목제품	90	-

주: 순위는 2012년 11월 누계 기준

자료: KOTIS (MTI 4단위 기준)

4.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대 몽골 투자현황

한국의 대 몽골 직접투자는 90년대 중 후반까지 몽골의 투자환경 미비, 국내시장 협소, 기술 인력의 부족, 인프라 미비 등으로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1999년 이후 빠르게 늘고 있다.

2012년 9월 말까지 한국의 대 몽골 투자는 신고건수 961건, 신규 법인 수 417개를 기록했고, 신고금액은 누계기준 6억 4,612만 달러, 투자액은 2억 9,144만 달러에 달했다.

한국의 투자분야는 무역 및 요식업, 지질, 광업, 정보 통신분야 등이며 이들 중 대부분은 무역 및 요식업, 서비스, 여행, 문화예술교육, 교통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나. 주요기업 현황

ㅇ KT
- 몽골통신에 40% 지분으로 경영권 참여 중(2006년)
- 100억원 규모의 지진 재난 경보시스템산업 (2012년)

ㅇ 삼성물산
- 에르데넷 동광으로부터의 동정광(copper concentrate) 구매
- 광산철도, 관광호텔 등 건설사업 수주
- MCS 홀딩스로부터 900억 규모의 오피스 빌딩 수주

ㅇ 삼성엔지니어링: 울란바타르 지역난방 개선 공사 수주

ㅇ 대한항공: 서울-울란바타르간 직항노선 운영(주2회)

ㅇ SK텔레콤: 몽골 제2 휴대용 전화사업자로 선정되어 '99.7.10부터 사업 개시

ㅇ 대한광업진흥공사: 몽골 오유톨고이 구리광산 개발권 선점

ㅇ 현대자동차: 몽골 정부와 '대기오염 감소 및 대중교통 현대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반떼 택시 수출(1200대, 2011. 08월)

연도별 한국의 대 몽골 투자통계

(단위: 건, 천 달러)

분류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9월)
신고건	53	104	194	116	115	129	110
신고액	44,129	50,271	165,171	123,101	57,070	58,889	90,312
신규법인수	26	54	79	46	45	52	36
투자액	19,637	44,367	58,508	25,538	24,130	43,101	47,46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5. 출장가이드

가. 출입국/비자

1) 비자발급처

☐ 주한몽골대사관

○ 서울시 용산구 한남1동 33-5번지
○ 전화: 794-1350,1951 팩스: 798-3465
○ 지하철 중앙선 한남역

2) 비자신청서류

○ 관광: 최소 6개월간 유효한 여권, 여권용 사진 1장, 신청서 작성, 비자수수료 입금 영수증
○ 상용: 상기 서류 외 출장증명서

몽골비자 유효기간은 발급 일부터 3 개월이며 취업과 유학 등 목적으로 몽골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몽골 외국인 및 국적관리사무소(Office of Immigration, Naturalization and Foreign Citizens)가 송부한 공식 허가서나 초청장에 근거해 입국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18세 미만의 자녀 중 부모의 어느 한 사람이 몽골인일 경우에는 몽골비자를 받을 때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몽골인 부모의 여권을 제출해야 하며 비자요금이 면제되어 봉사료 10,000원을 지불하면 된다. (즉시비자 15,000원)

공식 허가서나 초청장 도착했는지 여부는 대사관 게시판에서 검색할 수 있다.

비자종류 및 발급비용

단수비자(1회 입출국 가능)			복수비자(90일 이내 2회 입출국 가능)		
일반비자	급행비자	즉시비자	일반비자	급행비자	즉시비자
48,000원	81,000원	86,000원	54,000원	93,000원	98,000원
2박 3일	접수당일	접수20분내	2박 3일	접수당일	접수20분내

자료: 한몽교류진흥협회

몽골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지 않고 최근 2년 동안 4번 이상, 1998년도부터 총 10번 이상 몽골을 입국한 한국 국적을 가지는 자는 비자 없이 30일간 몽골에서 머물 수 있다.

(자료: 주한 몽골대사관)

3) 출입국시 유의사항

출입국시 외환신고를 해야 하며 출국 시 신고액 이상의 외환을 소지했을 경우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

녹용, 웅담, 사향, 곰가죽, 공룡알 등은 몽골 내에서 정식 수출절차를 거치지 않은 여행객 휴대품으로는 반출이 금지된 품목이므로 주의 요망

4) 기타 유의사항

□ 공항에서

몽골공항은 한국의 공항처럼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항 내 시설(전화, 식당, 환전, 호텔예약, 안내, 수화물 보관 등)을 이용하여 개인용무를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가능한 시내로 빨리 들어와 대사관, 한인회나 여행사를 통해 숙박이나 기타안내를 받는 것이 편리하다.

공항에서 시내까지 운행되는 셔틀버스는 없고 공항 옆 동네에서 시내로 가는 버스는 운행중 이지만 몽골에 처음 온 외국인이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그러므로 마중자가 없는 경우 택시를 타는 것이 좋다. 요금계산은 1km당 300투그릭 정도이다. 공항에서 울란바토르 시내까지는 약 20km정도이다.

□ 숙박, 교통, 환전

호텔이용 시 여행사를 통하여 예약을 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체류자인 경우는 아파트를 이용한다. 몽골 현지여행사에서 장기체류자들을 위하여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아파트 월 임대요금(방2개, 거실포함)은 월 평균 200 달러 정도이다. (가구 완비, 전화 시설 있는 경우 약 250 달러 정도) 교통은 버스를 이용할 경우는 200투그릭이다.
한국인 등이 운영하는 숙박업소가 다수 있어서 한인신문, 교민신문 광고 등을 활용하여 숙박업소를 정하면 편리하다. 관광시즌에 따라 가격차는 있어도 바가지 등은 없다.

15일 이상 장기체류자인경우 경찰서(여권과)에 신고해야 한다. 비자기간과 상관없이 반드시 몽골 여권 국에 신고하여 등록도장을 받는다. 그리고 출국 전에 반드시 신고말소를 해야 출국 할 수 있다. (신고말소 없이는 출국을 못함) 몽골입국 후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15일이 지나면 하루에 2,000투그릭씩으로 계산하여 벌금을 낸다.

몽골관광성수기(7,8월)에는 비행기좌석 재확인을 안 하면 항공사가 좌석을 취소시키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출발 3일전에는 반드시 좌석 재확인이 필요하다.

□ 상점과 쇼핑

대부분 몽골경제는 자연산 상품에 의존하고 있다. 손으로 짠 카페트, 가죽의류 및 잡화, 양모, 피혁제품, 캐시미어, 낙타 털 제품 등이 있다. 유화나 나무 장난감, 퍼즐이나 게임 등도 있다. 기념품 가게도 있으며 인기 있는 품목은 그림, 골동품, 수공예품, 카펫, 책, 캐시미어, 전통 몽골 의상, 가죽제품, 벽걸이, 퍼즐, 엽서, 나무 조각, 코담배 병 등이다.

가격이 비싸지만 러시아, 아시아, 유럽 식품도 시장에 많이 나와 있다. 대부분의 몽골 상점은 큰 상점 내에 속해있는 작은 가판대라고 보면 된다. 상점에서 파는 물건들이 비슷하므로 원하는 물건을 정확히 찾아야 한다.

울란바타르 거리에는 '투츠(Tuuts)'가 많이 늘어서 있는데 바로 간단한 먹거리나 식품을 파는 가판대를 말한다. 모험심 강한 관광객이라면 암시장을 찾아가볼 만하다. 암시장은 울란바타르 외곽에 있는 대규모 벼룩시장에 있다. 이곳에는 갖가지 물건들을 팔고 있으며 항상 사람들로 붐빈다. 하지만 소매치기를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지갑이나 소지품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 **관광 및 외출 시**

- 승마 사고가 종종 발생되고 있어 반드시 기수 보호 아래 승마해야 한다.
- 도로 사정이 열악한 편이고 광활한 대지위에 인적이 드문 관계로 홀로 운전 시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위험에 빠질 염려가 있다(특히 겨울철에 차량운행 중 고장 시 동사할 염려 있음)
- 대중교통수단(버스 등)이용은 좋지 않다. (차량 노후, 소매치기 위험)
- 자가용 영업 택시 이용 금지, 콜택시 이용.
- 차량 임대 시 노후, 고장 여부 꼭 확인 요함.
- 저녁에 돌아다니는 것은 자칫 시비에 말릴 염려가 있어 현지 안내인 없이 다니는 것은 위험하다.
- 현지 여성과 돌아다니는 것은 극우단체원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

☐ **출국 시 유의사항**

몽골을 여행하는 도중 박물관이나 거리에서 옛 골동품으로 보이는 물건들을 팔기도 하는데 구입은 자유지만 반출이 되지 않는다. 출국 시 발각되면 벌금을 물고 물건은 압수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기타 공산품은 자유롭게 가지고 나갈 수 있다.

박물관에서 구입한 물건은 도장이 찍힌 영수증이 있으면 한 두 개 정도는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출국 시 유의할 점은 비행기를 탑승하기 전까지 두 번의 검사를 받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물건들이 발각되기 쉽다. 또 이곳 세관에서는 한국인들을 항상 주목하기 때문에 사전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공항에서 탑승권을 받고 짐을 부치면 공항 이용권 (US$13)을 구입한다.

- 2007년 한국인 2명 웅담, 사향소지 혐의로 출국시 공항에서 체포당한 사례가 있다(재판회부 벌금형 선고).
- 2006~2007년 금목걸이, 팔찌 등을 착용하고 출국하던 한국인 밀반출 혐의로 조사받은 사례가 있다.
- 동물의 생산품(웅담, 사향 등)을 선호하는 한국인을 겨냥한 시장(나란톨 시장)등에서 가짜를 파는 경향이 있음.
- 광물류(금 등), 식물류, 문화재, 비디오, 영화필름 등 반출 금지 품목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자료: 한국몽골협력협회, 외교통상부)

나. 출장시 유의사항

1) 사업

자체적인 시장조사를 거쳐 몽골에서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몽골인과의 합작투자는 신중해야 한다. 자금력이 부족한 몽골인의 경우, 몽골현지실정에 밝지 못한 외국인에게 합작투자를 해야만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해외투자법상, 합작투자법이나 100%외국인 단독 투자 법이나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으므로 성실하고 유능한 현지직원을 채용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으며 회사 설립 시 장, 단점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몽골에 아무 정보 없이 무작정 와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무모한 행위이다. 그런데 많은 한국인들이 몽골사정을 잘 모르고 나섰다가 뜻하지 않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큰 원인은 몽골 실상(의사소통도 안됨)을 잘 모르고 정보도 전무한데다가 믿었던 초청자들에게 사기를 당하기 때문이다.

몽골에 아는 사람도 없고 실상을 잘 모른다면, 일단은 주몽골한국 대사관의 상무관이나 재몽골한인회, 재몽골 한인 상공인회 등을 통해서 사업전망, 여러 가지 정보, 통역문제, 법률 문제 등을 상담 받고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다.

몽골에서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사업체(법인)등록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등록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업은 하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고 어렵 게 번 돈도 반출하기가 쉽지 않다. 재몽골 한인 상공회에서 몽골에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중요법안들(외국인투자 법, 각종 세법, 노동법 등)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판매 중이니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2) 비자

주 한국 몽골대사관에서 발급하는 관광비자로는 몽골에 입국하여 단순히 정해진 시간(주로 15-30일) 내 출국해야만 한다. 단 몽골 외무부에 수수료30$을 내고 1달 연장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체류할 수 없다. 장기체류를 원할 경우 몽골에 아는 사람이나 회사를 통해 몽골외무부의 초청장을 받아야 한다.

몽골 외무부의 초청장은 개인이 아닌 주 한국 몽골대사관으로 보내진다. 주 한국 몽골 대사관에서 30~90일간의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몽골에 입국한 후에는 15일 이내에 여권 경찰서에(등록) 입국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여권경찰서에 등록신고(확인도장)를 하지 않아 공항 출국 시 낭패를 당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다. (당일 출국을 못함) 몽골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주 한국 몽골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몽골에 들어와 몽골 투자청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후, 사업체의 대표자는 몽골 투자청을 통해서, 직원들은 노동부 조정국을 통해서 여권경찰서로부터 1년짜리 장기체류허가증을 받아 생활할 수 있다.

(자료: 한국몽골협회, 주한 몽골대사관)